

오륙도 칼럼

조각의 계절이다. 거대한 운하의 바위가 한 해의 종착점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고 있다. 그래서일까 햇빛이 세상의 푸름을 삼켜 음울하고 적막하다. 세상의 모든 끝남은 그 결과를 떠나 언제나 슬프고 아련하다.

‘따림’. 금요일 오후, 한창 일을 하고 있는데 문자 메시지가 한 통이 날아왔다. ‘너무나 비통한 소식을 전하게 되어...’로 시작하는 대학 동문회장이 보내온 부고 문자였다. 심드렁하게 휴대폰을 들여다보다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대학 후배 K의 부고였다. 발인 날짜가 이를 뒤인 일요일이었다. 그럼 오늘 죽었다는 뜻. 문자메시지가 온 변호사 전화를 걸었다.

“이게 무슨 소리지?” “형님... K가 죽었습니다. 오늘 새벽 자, 자살했습니다.” 순간 뒤통수를 맞은 듯 어질렀다.

“대체 왜?, 혹시 사업 때문에...?”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후배도 나도 말문이 막혔고 수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K는 대학 후배다. 나이가 나보다 딱 열 살 어려, 캠퍼스 생활은 함께 하지 못했지만 간혹 잡석했던 동문 모임에서 몇 번 본 적이 있었다. 흰칠한 키에 성격이 서늘스글해 다른 후배에 비해 눈길이 갔다. 제약회사에 취직했지만 꿈을 펼치고 싶다며 관두고 창업했다. 창업 아이템은 뜻밖에도 상주였다. 고기 먹을 때 싸 먹는 적상주를 지리산 농장과 계약 재배

로 대량 수급해 큰 고깃집이나 프랜차이즈업체에 납품하고 있다고 했다. 남들이 손대지 않는 틈새시장이었고 사업은 꽤 번창하고 있다는 소문이 동문들 사이에서 돌았다. 녀석의 성공보다는 도전과 모험을 선택한 청춘의 열기가 느껴져 기록했다. 여기까지가 녀석에 관해 내가 아는 전부였다. 대학 동문회에서 그와 나의 인연은 이 정도 썸으로 만 알고 있다.

하지만 그는 나에게 좀 더 특별한 후배였다. 그는 나의 고객이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삶에 지쳐 힘들어 하던 나를 복돋아준 유일한 고객이었다. 한때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긴 백수생활을 했다. 그러던 중 보험회사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고교 친구의 권유로 보험설계사 일을 잠시 손대 적어 있었다. 힘든 일이었지만 무엇보다 적성에 맞지 않았다. 얼굴도 두껍지 않고 주변머리도 없어 공치는 날이 수도룩했다. 그러던 차에 K에게까지 전화를 걸었다. 꽤 많은 용기를 냈던 것으로 기억된다. 밝게 전화를 받는 그가 고마웠고 저녁 자리까지 이어졌다.

“형님, 그러잖아도 조금 하나 들까 담 먹고 있었어요. 생명보다는 저축보험 쪽으로 하나 짜주세요. 나중에 회사 키우려면 돈을 좀 모아야 했어요. 그리고 저희 트러이 많은데 자동차보험도 하십니까?”

빙빙 에둘러 말하는 선배의 청탁을 그는 명쾌함으로 응대했다. 후배는 사

무실 인근 한집을 매입해 상주공장을 만들 생각이라고 했다. 서랍 형태로 상주를 심어 LED조명을 24시간 켜면 농장에서 자연 재배하는 것보다 회전율이 10배 이상 높아진다면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사업하는 사람은 따로 있구나’라는 생각에 그가 대단하게 보였다. 아직 여자친구가 없다는 말에 평소 관찰해 본 여자 후배 두 명을 소개해 줬지만 만남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그런 일이 있고 얼마 후 나는 보험을 접었고 서로 연락 없이 그렇게 몇 해가 흘러갔다.

토요일 오후, 장례식장이 있는 경남 밀양으로 차를 몰았다. 나는 여태 그가 부산에서 나고 자란 도회지 사람인 줄 알았다. 조문객이 많지 않아 시골 병원 장례식장은 한산했다. 상주 명단에 K의 모친 이름 옆에 낯선 이름이 보였다. 관계란에 ‘친구’라고 적혀 있었다. 미뤄 보건대 K는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형제 없는 외아들이었다 미혼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토요일 오후여서인지 조문객은 거의 없었다.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있는데 화장지 없는 여자가 다가와 인사를 했다. K의 여자친구였다. 아가 명단에서 본 낯선 이름의 그 상주였다. 그리고 보니 K에게 결혼을 앞둔 애인이 있다는 풍문을 얼핏 들었던 것 같다. 남편도 아닌 애인의 초상을 지키는 상주라니, 기가 찰 노릇이었다. 그녀는 먼 길을 찾아와 쥐고 고맙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 “겉으로 씩씩했지만 마음 깊은 곳이 많이 여렸던가 봐요.”

그녀는 애써 무심한 듯 말했다. 자초지종을 더 캐물고 싶었지만 생채기에 소금을 뿌리는 것 같아 차마 그러지 못했다. 식장은 적막했고 비통해하는 노모의 가는 곡소리가 간간히 들려왔다.

새로 직장을 구하고 생활이 안정되면서 K 생각이 가끔 났었다. 늘 고마웠고 기회가 되면 그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다. 그가 삶을 놓고 불과 며칠 전에도 그런 생각을 했지만 섣불리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 장례식장을 나와 대학 동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업이 잘 안 돼 동업도 깨지고 사채까지 썼던 모양이야. 올 초에도 잠적했었잖아. 아, 너는 모르겠구나. 올 1월인가, 일주일 잠수 타는 바람에 개 찾다고 동문에서 난리가 났었어. 그때 마음 추스른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모양이야. 그나저나 네가 혼자서 거긴 무슨 일로... 너 K 알아?”

먹장구름이 금세라도 비를 토해낼 듯 어둡고 위태롭다. 장례식장 너머 시골집 건너무에는 까치밥으로 남겨놓은 감들이 투신하듯 떨어져 살이 터져 있었다.

썩 진분 없는 후배의 죽음을 그것도 낯선 자살 앞에서 나는 살아있음에 감사했다. 슬퍼할 수 있고 우울할 수 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 세상 그 어떤 아픔 다움과 가치도 살아있음보다 찬란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느꼈다. 그리고 보면 K는 나에게 두 번의 희망을 안겨주고 떠났다.

김성현(부산남구신문 편집장)

신선대

<262>

채 규홍



조각의 계절에 들려온 낯선 후배의 부고 소식

살아있음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다는 가치 다시 깨달아

■ 임찬수의 인생을 바꾸는 말말말 <20> 연말모임 주목 받는 인사말

갑작스런 견배사 ‘삼행시’로 모면

추운 겨울이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회식부터 동창회, 행사까지 마음보다 더 빨리 스케줄러가 채워지는 이 시기에 견배사부터 인사말까지 나만의 필살 ‘한 마디’를 위한 즉석 스피치 비법을 알아보자.

첫째, 문장을 ‘삼행시’화하라. 아무리 명강연자, 달변가라 해도 갑작스러운 견배사에 타는 안 내도 속으로는 당황한다. 여기서 나만의 팁 하나를 전해 주겠다. 견배사 같은 경우 멋진 말과 멋진 줄임말을 생각하려 하지 말고 아무 문구나 삼행시화하면 된다. 예를 들어 ‘여러분 내년에도 복 많이 받고 행복하세요’라는 평범한 문구도 구절의 앞글자만 따서 ‘여! 복! 행!’이라고 견배사를 하고 옆에서 여백행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한 구절씩 삼행시 말하듯 그 뜻을 말해 주면 된다. 지금부터 아무 이야기나 해서 그 문장을 삼행시화하는 연습을 해보자! ‘오! 긴! 수!’. 오늘부터 견배사는 수천 개를 만들 수 있다.

둘째, 즉석 스피치의 핵심은 바로 그 순간의 상황을 포착하는 데 있다. 영하의 온도에서 한 시간을 땀고 난 뒤라면 그 아무리 멋진 사람이라도 빨리 끝내주기를 바라지 않겠는가? 앞이 너무 길거나 힘든 상황이라면 ‘추우셨죠? 짧게 끝내겠습니다’. 앞에서 너무 멋진 공연이나 달변가의 이야기에 빠져 들어있는 상황이

라면 ‘저에게 주어진 5분이나마 부탁드리고 싶을 지경입니다’. 너무 할 말이 생각이 안 나 떨어지는 상황이라면 ‘지금 시상식도 아니고, 동상이 걸린 것도 아닌데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너무 땀립니다. 이 땀림은 제가 여러분을 만나 우리가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고마움 잊지 않습니다’.

내가 말하기 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한 마디 한 뒤로 무슨 상황이 펼쳐지는지 그 순간을 포착하는 것이야말로 즉석 스피치 달인이 되는 지름길인 것이다.

셋째, 일상의 말이 시선을 끌 어담긴다. 나에게 주어진 순간의 찰나에 딱딱한 연설, 경어체 말투를 사용한다면 청중은 눈길을 주지 않을 것이다. ‘갑작스레 주위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같은 교장선생님 말투가 아니라 ‘기다리느라 추워 죽을 뻔 했죠? 바쁜 일정이신데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은 말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오는데 차 많이 막혔지요? 라며 친근하게 말을 던지는 것이다.

유명 연사들의 이야기에 빠져드는 이유는, 책을 읽는 것 같은 말투가 아니라 내 눈앞에서 생생하게 그려지듯 일상의 말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멋있어 보이려는 마음은 조금 접어두고 청중이 공감하는 생생한 단어를 사용해 보자. 긴 말보다 한마디 말이 어렵다. 하지만 간결하게 할 말만 하는 짧은 스피치로 연말 모임에 주인공이 되어 보자.

임찬수식스피치학원 원장

독자의 소리

부산남구신문편집실 ☎ 607-4065, 4075, FAX 607-4374, 1225honey@korea.kr

독자의 소리란은 독자 여러분을 위한 공간입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오륙도 백일장 수상자 명단

■윤문

대학·일반부 장원 : 양진원-파도소리
차상 : 이형주-파도소리, 임은경-파도소리
차하 : 이희선-농악놀이, 김은정-파도소리
참방 : 민나진-농악놀이, 손정은-파도소리
중·고등부 장원 : 서은진-하나의 파도소리
차상 : 김서연-농악놀이, 김효정-파도소리
차하 : 최진혁-나무
초등부 장원 : 김서현-농악놀이
차상 : 고다영-파도소리, 엄주용-파도소리
차하 : 김소민-파도소리, 엄지우-파도소리

■산문

대학·일반부 장원 : 권아영-벽시계
차상 : 박성자-가로수, 이정은-가로수

차하 : 성가영-벽시계, 한명희-벽시계
중·고등부 장원 : 전소현-벽시계
차상 : 조민정-가로수, 김수민-벽시계
차하 : 노은주-가로수, 김호정-벽시계
참방 : 김서연-벽시계
초등부 장원 : 김정민-벽시계
차상 : 엄재용-가로수
차하 : 추서영-가로수
* 장원 작품은 오륙도문학에 수록됩니다.

■심사위원 명단(무순)

윤문 심사 : 선용, 배기환, 류수인, 김종화, 엄계자
산문 심사 : 김상남(심사위원장), 옥지부, 조을음, 김용빈, 권재영

파도소리

양진원(부산시 연제구)

덜컹덜컹 어머니 서랍을 열면 오래된 패들들이 스물스물거리며 가슴 한 칸으로 올라온다

옥으로 된 브로치는 자라는 고우나 이미 유행을 마감한 듯 썰물소리를 내며 물러가고 있다

자색 수정은 원석 덩어리만 남아 반지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채 밀물소리를 내며 물러가고 있다

이미 퇴색된 진주목걸이는 고이 추억만 간직한 채 찰랑찰랑 파도소리를 내며 물러가고 있다

자식들은 항구로 무사히 귀갓시키고 다시 먼 바다로 떠날 채비를 하는 당신의 파도소리에 잠을 청합니다.

하나의 파도소리

서은진(동향중학교 3-5)

귀를 기울이면 들려오는 작은 목소리

귀를 기울이면 들려오는 잊지 못할 그 목소리

그 작은 목소리가 모여 잊지 못할 목소리로 다가올 때,

비로소 그것은 하나의 목소리

한 마리의 물고기가 작은 파도소리를 만들듯

여러 마리가 모여 더 큰 파도소리를 만든다

한 사람의 목소리가 모여 더 큰 소리로 다가올 때, 비로소 그것도 하나의 파도소리.

농악놀이

김서현(용소초등학교 3-5)

농악놀이때 우리 마을에 왔다. 장구, 팽과리, 징, 북, 악기 사형제 놀러와 덩덕덩덕 농래 맞추어 친다.

가위 부딪친다. 아이들이 물러와 부러진 순가락 엇과 바퀴 먹는다.

어느새 옛정수 와 쫓까따 쫓까따

사람들도 물러와 얼싸구 좋다, 하면서

쌈과 벼, 보리를 들고 춤을 춘다.

농악놀이가 끝났다. 안 떨어지는 발걸음 붙잡고 집에 간다. 내년을 기다리며...

※ 산문 장원 원고는 지면 사정상 지면 사정상 게재하지 못한 점 양지바랍니다.



우리지역 일자리 알림판

<2017. 11. 22. 기준>

회사명	근무지	모집직종	모집인원	모집기간	임금조건	연락처
㈜절라이프	감만동	택배원	16명	17. 11. 22~채용시까지	연봉 3,300만원	070-8790-5617
시티칼	문현동	사무보조원	1명	17. 11. 22~채용시까지	시급 6,470원	051-630-9314
㈜일우종합건설	문현동	건축현장소장	1명	17. 11. 22~채용시까지	월급 300만원	051-995-0404
영여술운선생	문현동	영여강사	1명	17. 11. 22~채용시까지	월급 130만원	051-631-9961
케이에프앤에스㈜	대연동	경리사무원	1명	17. 11. 22~채용시까지	월급 190만원	051-626-8604
삼성에그르	우암동	배출 및 납품운전원	1명	17. 11. 22~채용시까지	월급 200만원	051-639-2114
애연복지	대연동	간병인	1명	17. 11. 21~채용시까지	월급 159만원	051-558-7500
㈜중앙레포즈	용호동	헬스 트레이너	1명	17. 11. 21~채용시까지	시급 6,470	051-622-8036
정성기트(본사)	용당동	식품공학기술자 및 연구원	1명	17. 11. 21~채용시까지	연봉 1,630만원	010-7167-0536
참소환우식육산업	용호동	음식서비스지원원	1명	17. 11. 21~채용시까지	월급 250만원	010-3838-4467

※ 대한민국 모든 일자리 정보(worknet)와 연계
※ 남구 취업정보센터 ☎607-4347~8 Fax. 607-4349

식당이라 물 따라라

산행을 떠나요



<2017. 12.>

구분	산악회	산행일자(요일)	산행장소	연락처
대연동	연포산악회	12/10(일)	전남 해남 달마길	010-3832-5971
	약천산악회	12/20(수)	상주 경천대 갈매길	010-4655-4370
	백호산악회	12/13(수)	충무 통영	010-5621-4007
	대오산악회	12/10(일)	경남 남해 설악산	010-8557-0479
	금강산악회	12/3(일)	거창 우두산 장군봉	010-3865-9051
용호동	용신산악회	12/10(일)	경남 산청 천왕봉(지리산)	010-4657-7051
	청산산악회	12/3(일)	충북 속리산 내묘봉	010-8008-2087
	간세기산악회	12/10(일)	전남 광주 무등산	010-7563-1943
	환경산악회	12/3(일)	제주 해안트레킹	010-3575-3448
	여남산악회	12/10(일)	남해 대방산	010-3855-6569
감만동	신선산악회	12/10(일)	영암 월출산	010-6520-0167
	용호산악회	12/24(일)	경북 문경 추월산	010-6266-8525
	용사산악회	12/24(일)	순천 금전산 낙안온천	010-2124-9329
	여명산악회	12/3(일)	충북 천태산	010-3554-4392
	산오름회산악회	12/3(일)	용호동 신선대 들레길	010-7223-2277
우암동	글로벌산악회	12/17(일)	삼천포 각산	010-4752-2940
	백운산악회	12/24(일)	광주 무등산	010-2861-3177
	녹색산악회	12/24(일)	영주 소백산	010-7342-3426
	오솔길산악회	12/3(일)	통영 대매물도	010-8287-1192
	우암산악회	12/3(일)	구례 오산	010-3595-5848
문현동	우남산악회	12/17(일)	거창 월봉산	010-7520-6666
	월무리산악회	12/17(일)	과산 칠보산	010-4564-7769
	산누리산악회	12/3(일)	해인사 만물상	010-4035-3432
	문사산악회	12/10(일)	백암온천	010-8466-8662

※ 산행일정은 산악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산남구신문

1996년 1월 1일 창간

발행처 부산광역시 남구 / 편집주간 김 성 한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대연동)
남구청 대표전화(051)607-4000 편집실(051)607-4065, 4075 / FAX(051)607-4374

부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 http://www.bsnangju.go.kr

인쇄처 부산일보사 / 월간 <비밀망>

본지는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